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었지만 변화는 확실했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아챘을 것이다. 그녀는 좀 더 활달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녀는 내성적이고 좀처럼 낯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꺼렸었다. 나를 대하는 태도도 분명 달라졌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생긋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나로서는 시술이 그녀의 삶을 개선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옷차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한결같이 회색의 긴 팔 긴 바지를 선호하던 그녀는 이제 길이가 상당히 짧은 화려한 색상의 치마도 입었다. 사랑거리는 그녀의 치마와 그 아래로 길게 뻗은 그녀의 예쁜 다리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갈아 끼운 듯했다. 언제나 불평불만을 감추려는 듯 눈을 내리깔고 있던 그녀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긍정의 화신이 된 것이었다. 이 시술의 효과에 적지 않게 놀란 나는 그녀가 시술받은 그 병원을 찾아갔다. 나 또한 시술의 효과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였다. 사람들이 병원 바깥으로까지 줄을 서 있었다.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었다. 내가 선 곳 2미터 앞쪽에 ‘여기서부터 3시간 소요’라고 쓰여있는 팻말이 서 있었다.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가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어쨌면 내 앞의 사람들이 먼저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한참을 서 있자니 지루하기도 하고, 다리도 아파서 괴로워하다가 앞에 선 젊은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실례지만 무슨 시술 하러 오신 건지 여쭙봐도 될까요?”

여자는 고개를 돌려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별로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덱은 무슨 시술 하러 오셨는데요?”

“아 예. 저는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

“그렇군요. 저도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이 줄은 전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네. 그런 것 같군요.”

다 처지가 같으니 더는 할 말이 없었다.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듯 피곤했다. 그곳에는 다행히 안락해 보이는 커다란 연두색 소파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컴퓨터 스크린에서 눈을 떼더니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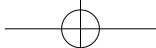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예... 저는 사실 시술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별로 없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술은 세계 최초인 만큼 특허를 받은 뛰어난 시술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이 시술은 환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더 나은 방향으로라고 해도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더라도 좋은 점이 조금은 있었을 테니까요. 한번 시술을 받은 환자가 재시술을 받기로 결심했더라도 예전 상태로 똑같이 복귀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비슷하게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작용을 염려하여 시술하는 환자들에게 기억의 일부를 지우는 시술도 같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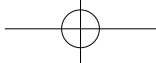






FOR





대부분 그럼 두 개의 시술을  
한꺼번에 하나요?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재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나요?

재시술을 받더라도 저는  
일단 기억을 남겨놓고 싶군요.

아직 확실하진 않고요….  
사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찾아 왔어요.

70-80%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보존하고 싶어하시는 환자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 서약을 한 후  
시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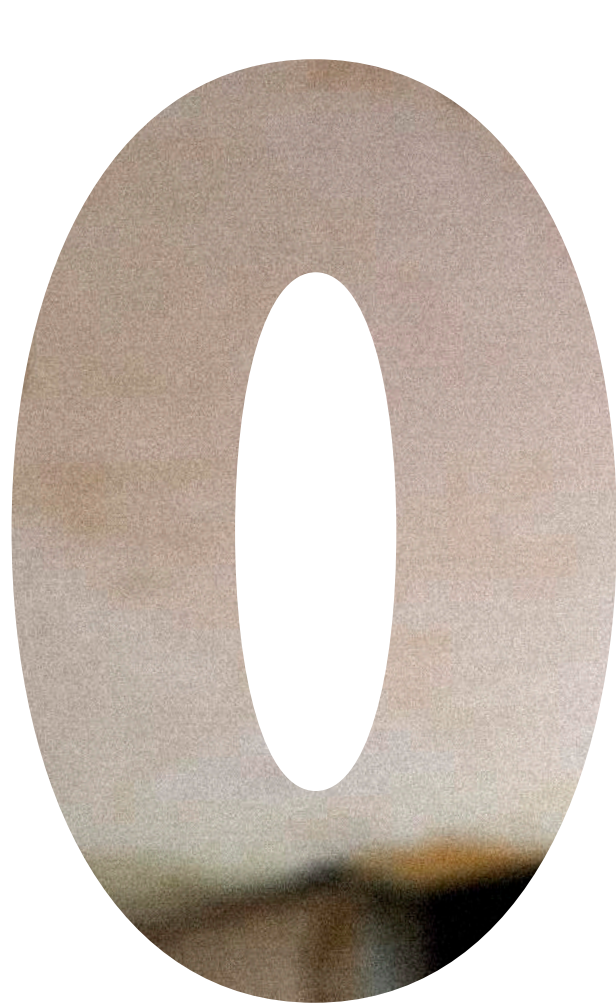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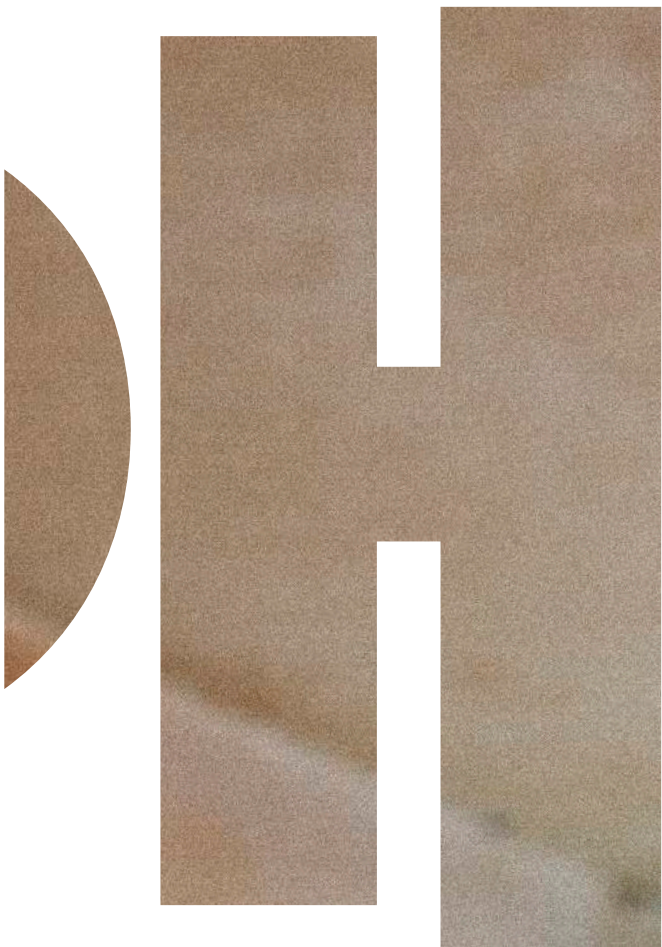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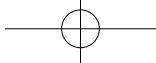
물론 환자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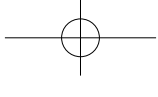
기억을 보존하고 싶어 했던 환자들은  
대부분 재시술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부작용을 경험하고 나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 많은  
경우, 기억이라는 것이 이런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간직할 가치가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환자들과 재시술을 상담하면서 추출해  
낸 결론입니다.

정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시술을 원하시는지는 생각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좀 더 밝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수줍음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재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항상 소외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부작용은 어떤  
증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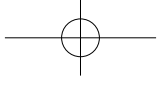
그러나 개인마다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성격이 드러나는 방법은 다릅니다.

아, 이런 성격에 꼭 맞는 시술은  
3번 시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시술이기도 하지요.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개인 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시술 후 회복 기간이 지나면 환자분은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건 비단 타인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이지요.

부작용은 대체로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  
착각하는 착란 증세를 말합니다. 자아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혼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듯 대화를  
하는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는 전혀 해가 되는 그런  
부작용은 아닙니다. 다른 부작용 증세로는  
혼란 증세가 있습니다. 두개 혹은 더 많은  
목소리가 환자의 의식 속에서 충돌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어떤 선택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증세가 조금 더 견디기  
괴로운 것 같습니다.





.....

시술 소요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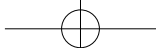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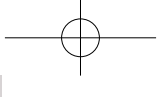
하지만 두 증세 다 신체적으로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재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소요시간은 준비시간을 합쳐서 1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충격이  
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큰  
시술이라고 할 수 있죠... 수술비에 대한  
자세한 견적은 전화나 이메일 주소를  
안내데스크에 기록하고 가시면 환자분이  
결정하신 후에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에서 나오자 아직도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나는 뭔가 뿌듯한  
기분으로 건물에서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녀를 한 번 더 만나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신체—기억의 상실,  
그 이전과 이후의  
중지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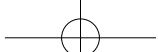
김진주



1 이영주의 작업을 소개하는 문장 속에는 신화, 꿈, 가상, 심리학, 설화 등의 단어가 주로 등장한다. 이영주의 다른 작업 중에는 드로잉, 애니메이션, 퍼포먼스, 비디오 등의 매체를 떠나 원시적 제의나 가면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나 오브제의 형상이 자주 등장하며, 의식의 분열 상태, 인간과 짐승 사이의 변이, 반인반수의 형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주제는 초현실주의자들이 가졌던 관심, 그리고 무의식을 다루는 다수의 미학적 용어와도 일치한다. '비포 앤 애프터'의 이미지들에서도 소재적으로 "밀납 인물상, 인형, 마네킹과 같이 초현실주의의 이미지 레퍼토리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할 포스터,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 외 공역, 아트북스, 2005, p.38)하고 있는 대상을 자동적으로 연상시키기는 어렵지 않다.

잘린 여성의 신체, 멈춰진 시계의 이미지가 늘어선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영주의 '비포 앤 애프터(Before and After)'는 마법, 환상, 죽음, 박제된 시간의 방이다. 현실을 초과한 이 이미지들은 세련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거칠고 서툴러 보이는 스트로크로 벽지 위에 바로 그려진 시계와 민머리 마네킹, 바닥 위로 앙상하게 불쑥 튀어나온 가발을 쓴 여성의 상반신. 그래서 누추한 혹은 가난한 표현이라 칭하고 싶은 이 이미지들은 실제로 뜯어진 벽지와 곰팡이가 그대로 노출된, 여기, 서울, 영등포의 한구석, 이 방의 현실과 묘한 어울림을 자아낸다. 그리고 이 어울림은 역으로 우리의 눈을 굶는다. 인간의 눈은 이 꾸며지지 않은, 날 것 같은 이미지들이 드러남에 불안함, 불쾌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대상들은 미적 표현을 통해 가려져 '애프터'가 된다. 생식기와 붙어 있는 맨살의 엉덩이는 부드럽게 흐르는 옷자락의 디자인 속에 숨겨지고, 쾌쾌한 썩은 내를 풍기는 얼룩덜룩한 곰팡이는 화려한 무늬의 벽지에 의해 덮여지고, 지방질과 혈관이 울퉁불퉁한 튀어나온 살집은 윤기 흐르는 피부색 안료를 덧씌운 매끄러운 몸매의 마네킹 조형으로 지워지게 마련이다. 여기서 '비포'의 이미지는 uncanny 혹은 umheimlich 라고 익히 알고 있는 (초현실주의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특정한 이미지적 특성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원래는 익숙했으나 억압 때문에 낯선 것들이 되어버린 대상이 되살아나며, 그로 인해 현실과 상상,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본능,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죽음)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대립하는 어떤 것들이 공존할 때 느껴지는 불안에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이영주의 작업이 자아내는 시각적 이미지가 은폐된 것들을 향한 충동과 불안함을 자아내는 (초현실주의 혹은 무의식적) 이미지류에 접속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sup>1</sup> 다만, 다시 작품의 제목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이 분열된 주체의 장면의 특성을 ('초현실/무의식'적이라고) 단적으로 판명하기 전에, '비포'로 돌아가 다시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유사' 초현실/무의식의 두 개의 방,



이영주의 ‘비포 앤 애프터’에서 마주하는 주체의 분열<sup>2</sup>은 안과 밖이라는 공간적 경계보다는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의 경계 위에서 발생하며, 그 공간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 의식적으로 배치된, 하나의 무대 장면과도 같다. 엉덩이를 본뜬 3개의 오브제 중 오른쪽 ‘비포’의 방에 부착된 것을 보자. 허리 아래가 아닌 눈높이 정도에 걸린 양쪽 엉덩이 사이로 흐르는 가는 물줄기는 의식의 흐름을 뒤집는 오묘 줄기가 된다. 이 ‘흐르는 물’을 하나의 이미지로 치면, 이는 시각적 경험보다는 청각으로 먼저 감지된다. 실은 두 개의 방문에 이르기 전에 먼저 경험되는 것이 이 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새는 소리이다. 졸졸졸 흐르는 이 소리에, 보기도 전에, 그 ‘애프터’가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른 감각과의 시차적 연관 속에서 발생한다.<sup>3</sup> 공감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리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오브제, 가슴 모양을 한 헤드폰을 통해 시각의 청각적 전이는 이영주의 ‘비포 앤 애프터’에서 핵심적 위치에 놓이며, 감각의 교환을 시각의 다른 층위로 귀환시킨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패티시의 대표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슴은 그 안에 담긴 ‘듣는다’는 기능으로 인해 보는 것을 탐하는 대신, 그 부드러운 촉감과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가슴을 나의 신체 일부분(귀와 머리) 위에 덧붙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로써 가슴이라는 이미지는 글래머러스한 핀업걸이 아닌, 어린 시절 친구같이 여기며 몸을 부대끼고 대화를 나누었던 장난감이나 토템<sup>4</sup>의 위치에 가깝게 옮겨진다.

송배나 탐닉의 대상이 아닌, 친근한 이미지로서의 가슴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주변에 어떤 ‘그녀’가 성격 교정술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호의적으로 바뀐 것을 보고, 자신 또한 시술을 결심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sup>5</sup> 아직 현실에 없는 이 시술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올법한 그것으로, ‘성격’적 시술, 즉 인지적 성형을 통해 신체의 이미지 혹은 타인의 인식을 조작할 가능성을 예비한다.

2 앙드레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선언문’(1924)에서 초현실주의의 주제를 “창문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뉜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 잠들기 전에, 낯말 하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발음된, 그러나 일체의 음성이 소거된, 매우 이상한 어구 하나를 감지하였으니, 내 의식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면, 그 순간 내가 연루된 어떤 사건의 흔적도 지니지 않고 도달한 어구이며, 감히 말하자면 창문을 두드리던 어구였다. ... 그것은 대략 ‘창유리에 의해 두 쪽으로 잘린 한 남자가 있다’ 정도의 말이지만, ... 신체의 촉과 직각을 이루는 창유리에 의해 중동이 잘린 채 걸어가는 한 남자의 시각적 형상이 그 어구에 희미하게 겹쳐 있었”다. 앙드레 브르통, “초현실주의 선언”, 황현산 역, 미메시스, 2012, p. 85. 이를 두고 할 포스터는 “환상의 창문에 의해 주체가 반은 장면 안에 반은 장면 밖에 놓이는 분열을 겪게 된다.”고 분석했다. 할 포스터, 앞의 책, p. 109.

3 미첼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그의 저서 “광학”에서 맹인이 물체와 공간을 더듬기 위해 사용하는 지팡이에 시각을 비유하며, “시각을 확장되고 고도로 민감한 촉감의 한 형태로 간주”했다. W. J. T. 미첼, “그림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미지의 삶과 사랑”, 그린비, 2010, p. 501. 시각을 다양한 감각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내는 태도는 실은 훨씬 오래된 것이다. 데카르트보다 훨씬 이전에, 플라톤은 본다는 것은 시선이 오브제에 부딪히고 접촉한, 즉 눈이 오브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파악하기도 했다. “On the other hand the impression of sense which is most easily produced is most readily felt, but is not accompanied by Pleasure or pain ; such, for example, are the affections of the sight, which, as we said above, is a body naturally uniting with our body in the day-time ... in which the eye is affected by the object, and itself strikes and touches it.” <http://classics.mit.edu/Plato/timaeu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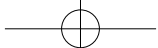
4 “브뤼노 라투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지에 대해 우리는 결코 현대인이었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쟁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토데미즘을 비판적 틀로 제안했다. 왜냐하면 토데미즘은 이미지의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즉 친구와 친척들 사이에서 하는 게임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미지를 찬미하거나 비방하거나, 숭배하거나 파괴하거나 하는 위계질서의 층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닌 것이다. 토데미즘은 이미지로 하여금 보는 사람과 사회적이고 대화적이며 변증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제하게 하며, 이는 어린아이와 인형 혹은 박제된 동물 사이의 관계와 같다. 우리 어른들은 여기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며, 이 교훈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해 보이는 이미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첼, 앞의 책, p. 158.

5 이영주의 작가 노트를 인용하면, 이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하나의 단편 소설로 칭하며, 그 집필 의도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단편 소설은 어떠한 시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시술은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격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 ... 소설에서 ‘인간성의 변화’가 ‘시술’이라는 극히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 외형을 고침으로써 그것의 내부적인 가치가 바뀌기를 꿈꾸는 문화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말하자면, 실제의 코를 높이는 대신 이전의 코에 대한 신체적 이미지의 기억을 삭제하고, 높아진 코의 이미지를 이식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 인식이 자신을 보는 다른 사람의 인식 또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 간혹 신체는 실제로 있지 않아도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 이미지로서 현실감을 발휘하는데, 그런 예들 가운데 우리는 사지절단 환자가 절단되어 없어진 신체 일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환상에 휩싸이는 경우를 들은 바 있다. 이 환자들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없어진 신체를 감각하기도 하고,<sup>6</sup> 그 상실된 부분에 가해지는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sup>7</sup>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기대에 어긋나게, 시술 시행자(의사)에게서 뇌가 기술 이전의 기억과 성형된 자아의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억의 삭제가 필수라는, 이 성격교정술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듣는다. 환상사지 환자가 오른쪽 뺨에서 잃어버린 왼쪽 손을 느끼듯, 일종의 정신과 신체의 불일치, 혹은 기억된 자아와 망각된 자아의 착란의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지로서의 신체이든 실제의 신체이든, 그것이 기억으로 우리에게 잔존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기억의 표상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시각적 특징으로 인해 형성되는 감정표현과 가치 또한 변화될까? 인간으로서,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 혹은 몸짓에서 어떤 느낌을 전달받는다. 그리고 그 느낌을 근거로 그 시각적 표현이 어떤 감정표현인지 판단하고, 따라 한다. 이렇게 형성된 감정표현과 표정의 상관관계는 하나의 개체를 넘어서 표정 혹은 몸짓이라는 신체 이미지로 기억되고, 전해지며 일반화, 공통화된 어떤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sup>8</sup> 지금 이곳에서 그 가치는 ‘착한 몸매’, ‘이 편한 세상’<sup>9</sup>이라는 식으로 신체적 표상과 도덕적, 사회적 가치의 착종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에 이르렀고, 그 가치를 좇아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개인의, 도시의 육신 위로 과감히 결합하고, 이전의 신체 이미지를 삭제한다. 변화된 우리, 개인의, 도시의 신체적 표상은 과연 그렇게 ‘착하고, 편할까?’ 그 표상들로





6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사지의 의미를 알고 있다. 악성 종양이나 불의의 사고로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가 생겨 팔을 절단한 환자가 절단된 팔의 존재를 계속 느끼는 환상이 환상사지(phantom limbs)다. ... 예전에 왼쪽 팔꿈치 위로 절단된 환자가 있었다. 나는 눈이 가려진 채 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의 신체 가운데 다른 부위를 살며시 만지면서 그에게 내가 만지는 곳이 어딘지 물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였다. 그러나 내가 그의 오른쪽 뺨을 만지자 그는 “제기랄! 당신은 지금 나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만지고 있소”라고 외쳤다. 그도 나만큼 놀랐던 것 같다. 그의 윗입술을 만지자 그는 환상 집게손가락에서 감각을 느꼈으며, 그의 아래턱을 만지자 환상새끼손가락에서 감각을 느꼈다. 그의 얼굴 표면에는 잃어버린 환상 손의 완벽하고도 체계적인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란, “뇌가 나의 마음을 만든다”, 바다, 2006, pp. 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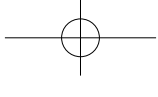
7 이 고통은 가상이면서 실체이다. 환상사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의 예가 그를 입증한다. 라마찬드란은 환자의 환상 속에서 마비된 왼팔을 거울 이미지를 통해 재현한다. 거울을 환자의 오른쪽 가슴에 오게 설치하고, 비치는 오른쪽 손이 환상사지인 왼쪽 손처럼 보이도록 환상사지가 느껴지는 위치에 포개지도록 하고, 환자에게 양쪽 손을 움직여보도록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오른쪽 손을 움직이는 것이지만, 환자는 환상 속의 왼쪽 손을 움직이는 느낌을 받고, 고통을 일으킨 마비의 원인을 풀 수 있게 된다. 라마찬드란, 위의 책, pp. 36-37.

8 인간과 동물의 표정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의 기원에 관한 연구 중 대표적인 예로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김홍표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이 있다. 다윈은 인간과 동물의 표정이나 몸짓에 나타난 감정표현의 원리로, ‘첫째, 어떤 욕망이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 그것의 기능적 필요가 상실된 후에도 습관적으로 남게 되며, 둘째,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정반대의 행동이 나타나며, 셋째, 이러한 습관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신경계의 에너지의 영향으로 어떤 신체적 표현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정리한다. 다윈이 이때 감정표현의 분석 지표로 삼는 것들은 ‘두려움, 공포, 증오, 분노, 노여움, 혐오, 죄책감, 자각, 부끄러움, 무력감, 자부심, 즐거움, 환희, 헌신, 사랑, 긍정, 겸손, 수줍음’ 등이다. 이 감정들은 인간의 시각에서 찾아진 것들이며, 대부분 어떤 도덕적, 사회적 가치 평가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되짚자면, 그 감정들을 분석해내는 대상은 표정이나 몸짓이라는 이미지이다.

9 실제 아파트 광고 문구로, 살기 좋은 외부 경관과 인테리어를 갖춘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인해 실제의 신체이든 인식일 뿐이든, 그 무엇인가가 삭제되면서 환상사지를 얻게 되진 않았을까? 그렇게 생겨난 우리의 환상사지에도 어떤 고통이 가해지고 있고, 우리는 이로 인해 분열 상태에 놓이진 않은 걸까? 아니, 우리는 정말 그 환상사지를 감지하고 있거나 한 걸까? ‘애프터’와 ‘비포’ 사이의 벽을 관통하는 탁자 위에 올려진 성형 이미지들의 복사본은 이 거세된 환상사지들의 이미지를 양면으로 디스플레이한다. 인터넷을 떠도는 수많은 신체 변형의 저화질 이미지를 편집한 이 인체 보고서는,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수치와 방사선 측정의 대상에, 인류학적 혹은 범죄학적 도상학의 위치에 대입시키고 있음을 증거하는, 잃어버린 한쪽이자, 실은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의 남은 반쪽이다. 이 이중화된 이미지들 사이에서 서로의 얼굴은 시뮬라크라를 복제하고 차이는 흑백으로 퇴색되어 기억상실과 정신분열을 겪는다. 이영주의 초-현실화된 ‘가난한 이미지’<sup>10</sup>가 던지는 현실의 ‘애프터’에 대한 경고는 도덕적 교훈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생성하지 않는다. ‘비포’와 공존하는 그 선택의 순간을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망설임에 결국 시술을 하지 않고 돌아서지만, 그 중지의 순간에 모종의 만족감을 느끼는 그 혹은 그녀의 목소리처럼.

10 슈타이얼은 인터넷을 떠도는 저화질, 저해상도의, 계속된 (불법) 복제와 전송으로 인해 열화된 이미지를 ‘가난한 이미지’라 칭하며 옹호한다. 이 가난한 이미지들은 ‘자본주의의 미디어 생산 라인 속에서 상품의 꼴로 세계를 떠다니지만, 동시에 대안적 시청각 경제를 지탱할 저항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히토 슈타이얼, ‘가난한 이미지를 변호하며’, 김실비 역, “엇갈린 신(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2015, pp. 25-30.



## LOSS OF BODY-MEMORY, THE CEASED IMAGE OF BEFORE AND AFTER

Kim jinjoo

Young Joo Lee's 'Before and After', composed of two rooms filled with images of women's severed body parts and dead clocks is the room of magic, fantasy, death and taxidermied time. These images surmounting reality are not made with sophistication. The clocks drawn with rough and awkward strokes directly on the wallpaper, bald mannequins and a woman's torso with a wig desolately sticking out from the ground. Therefore, these images which I want to call squalid or impoverished expressions, form a strange harmony with the reality of this room in Yeongdeungpo, Seoul, where actually torn wallpaper and mold are directly exposed. And this harmony scratches our eyes in reverse. The human eye feels uneasiness and discomfort when such undecorated and raw images are revealed. Therefore, these subjects are hidden with aesthetic expression and become 'after'. The bare buttocks attached to the genitals are hidden in the smooth clothing, the spots of mold emitting bad odor are covered with colorful patterned wallpaper and the uneven surface of the flesh with body fat and veins is painted with glossy skin-colored paint to conceal it as a mannequin with a sleek body-line. The 'before' image reminds us of a specific imagery of a well-known term (often used in surrealism) as uncanny or umheimlich. Such imagery bases on the uneasiness produced when an object that was once familiar comes to life and because of that obscures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the conscious and subconscious, reason and instinct, life and lifelessness(death). Thus, it seems certain that the visual images that Young Joo Lee's work create are in contact with the (surrealist or subconscious) imagery of impulses and uneasiness directed toward hidden things.<sup>1</sup> However, if we were to remember the title of the work, we should return to 'before' and scrutinize before concluding rashly the characteristics of such scene of a fragmented subject (as 'surrealist/subconscious').

The two rooms of such 'pseudo' surrealism/subconsciousness, the division of the subject<sup>2</sup> faced in Young Joo Lee's 'Before and After' occur on time-based boundaries such as before and after, rather than on spatial boundaries such as inside and outside, and this space resembles a stage intentionally displayed according to the passing of time. Let us pay attention to one of the three objects casted from human buttocks, attached in the 'before' room on the right hand side. The thin stream of water flowing through the hung buttocks, not under the waistline but at

1 In the sentences describing Young Joo Lee's work often appear words such as myth, dream, virtual, psychology, tales etc. Shapes of characters or objets hinting a primitive liturgical vestments or masks often appear in Young Joo Lee's other work and she mainly focuses on the schizophrenic state of mind, the mutation between human and animals or shapes of half-man half-animal creatures. Such themes adhere with the interests the surrealists had, along with multiple aesthetic terms about the subconsciousness. It is not difficult to automatically associate the images of 'Before and After' with the subjects that are "exemplified in wax figures, dolls, mannequins, and automatons, all crucial images in the surrealist repertoire". (Hal Foster, "Compulsive Beauty", MIT Press, 1997, p.7).

2 In his 'Surrealist Manifesto'(1924), André Breton defines the principal theme of Surrealism as "a man cut in two by the window". "One night, before falling asleep, I became aware of a most bizarre sentence, clearly articulated to the point where it was impossible to change a word of it, but still separate from the sound of any voice. It came to me bearing no trace of the events with which I was involved at that time, at least to my conscious knowledge. It seemed to me a highly insistent sentence - a sentence, I might say, which knocked at the window. ... it was something like: 'A man is cut in half by the window'; ... accompanied as it was by the feeble visual representation of a walking man cut in half by a window perpendicular to the axis of his body.", André Breton, "Surrealist Manifesto". Hal Foster analyzed this as "a fantasmatic window, a "purely interior model" in which the subject is somehow split both positionally-at once inside and outside the scene-and psychically-"cut in two"." Hal Foster, previous book, p.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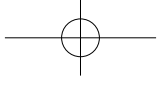
3 According to Mitchell, Descartes compares in his book "Optics", "eyesight to the sticks a blind man uses to grope his way about in real space" and "regarded vision as an extended and highly sensitive form of touch". W.J.T. Mitchell, "What Do Pictures Want? : The Lives and Loves of Imag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The attitude to comprehend vision in relation with other senses is actually quite old. Even before Descartes, Plato understood vision as follows; "On the other hand the impression of sense which is most easily produced is most readily felt, but is not accompanied by pleasure or pain ; such, for example, are the affections of the sight, which, as we said above, is a body naturally uniting with our body in the day-time ... in which the eye is affected by the object, and itself strikes and touches it." <http://classics.mit.edu/Plato/timaeus.html>

4 "When it comes to images, as Bruno Latour would put it, we have never been and probably

eyesight, becomes a urine stream which reverses the flow of consciousness. If we were to regard this 'stream of water' as one image, it is detected first by auditory sense before the visual experience. In fact, what is perceived before reaching the two rooms is the sound of water drips. With this dripping sound, we are able to imagine this image even before laying eyes on it, before the 'after' arrives. What we see with our eyes is created in a timely relation with other sensory parts.<sup>3</sup> Even further than synesthesia, the transfer of the visual to auditory senses from the objet containing the sound through the headphones in the shape of breasts is placed at the core of Young Joo Lee's 'Before and After' and this restitutes the exchange of the sensories beyond the level of the visual. Breasts,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fetish in psychoanalysis, instead of coveting to watch through the function of 'hearing' contained in them, their soft touch and their small size can only be attached on top of my body parts(ear and head). As such, the image of the breasts is not those of a glamorous pin-up girl but closer to that of a toy or totem<sup>4</sup> that were intimate and conversing as if they were childhood friends.

The voice heard from the heart with a familiar image rather than a revered or coveted subject, discloses a tale about how it came to decide for a procedure after 'she' positively changed upon completing a personality correction program that also led to a positive attitude of other people towards her.<sup>5</sup> This procedure which does not exist yet in our reality, is something possibly read in science fiction novels and this 'personality' correction procedure, that is through a cognitive plastic surgery, prevents the possibility to alter the image of the body or the perception of others. In other words, instead of shaping the actual nose, by obliterating the memory about the physical image of one's previous nose and implanting the image of a reshaped nose, the perception about oneself is altered and this perception also changes the perception of others toward him/her. Oftentimes, the body, even though it is not there, alludes a sense of reality as an image from our memory such as the example we hear about limb amputees believing in having parts of their body still attached to themselves and being consumed in such fantasy. Such patients feel their missing body parts in other parts of their body,<sup>6</sup> and sometimes feel the pain in the missing parts.<sup>7</sup> The protagonist of this voice, unexpectedly hears a warning about this personality correction procedure from the person in charge (a doctor) that the brain may show discordance between memories before the procedure and the newly shaped ego, and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inevitable to delete the corresponding memories. As a patient with phantom limbs pain feels the touch of his/her





never will be modern. I have suggested totemism as a critical framework for addressing these issues because it addresses the value of images 'on the level', as it were, as a game between friends and relatives, not as a hierarchy in which the image must be adored or reviled, worshipped or smashed. Totemism allows the image to assume a social, conversational, and dialectical relationship with the beholder, the way a doll or a stuffed animal does with children. We adults could learn something from their example, and perhaps apply it to our relations with the images that seem, for often mysterious reasons, to matter so much to us." W.J.T. Mitchell, previous book.

5 To quote from Young Joo Lee's artist's notes, she calls the story told through the headphones as a short novel and writes about authorial intent as follows; "This short novel is about a certain procedure but this procedure is effective in altering the personality rather than the appearance. ... In the novel, 'the transformation of personality' is done by a physical method of 'procedure' and this is in fact my thought on the culture that dreams to modify inner values by altering the appearance."

6 "Everyone here knows what a phantom limb is. A patient has an arm amputated because there's a tumour, malignant tumour on the arm or there's been a car accident and the arm has to be amputated, but the patient continues to vividly feel the presence of that arm. ... So we have a patient with a phantom left arm. His arm had been amputated above the left elbow so I had him sitting in my office blindfolded and I took a Q tip and touched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nd asked him what do you feel? I touched his shoulder and he said oh you're touching my shoulder. ... -not surprising. But the amazing thing is when I touched his face, the left side of his face - remember his left arm is amputated so he has a phantom on the left side - when I touched his cheek he said oh my god doctor, you're touching my left thumb, my missing phantom thumb and he seemed as surprised as I was. Then I touched him on the upper lip and he said oh my god you're touching my phantom index finger, and then on his lower jaw and he said you're touching my phantom pinkie, my little finger. ... There was a complete map, a systematic map of the missing phantom hand on his face, draped on his face." Vilayanur Ramachandran, "The Emerging Mind", Profile Books, 2003.

7 This pain is both virtual and real. This is proven by the interesting experiment he conducted to relieve pain from a phantom limbs patient. Ramachandran reproduces the paralyzed left arm through a mirror. By placing the mirror on the right side of the patient's chest, the reflected right hand is placed on top to

lost left hand on his/her right cheek, s/he is able to manifest a type of discordance between the mind and the body or a state of dementia of the lost ego and the forgotten ego. This assumes that whether it be the body as an image or the actual body, it lingers in us as a memory.

If there were a change in the symbol of memory, will the expression of emotions and values formed by visual characteristics influenced by such change, also be modified? As a human being, we receive a certain feeling through the other person's expression or gesture. And based on this feeling, we decide what kind of emotion was expressed from its visual expression and we follow i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pression of emotion formed in such a manner and the facial expression is remembered and delivered as a body image such as a facial expression or a gesture, that is beyond one entity, to build a common value.<sup>8</sup> This value, here and now, explicitly reveals the clash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ymbol of the body and the moral and social values with expressions such as 'kind body' or 'ePyunhansesang' ("Such a comfortable world")<sup>9</sup> and these images created on such values consolidates strongly with the individual and the urban body to erase the previous body images. Are the transformed individual and urban physical symbols really that 'kind and comfortable'? Whether they are actual physique or merely perception caused by these symbols, are we not having phantom limbs by deleting something? And to these phantom limbs with pain, are we not being in a state of disruption as a result? Or, are we even sensing these phantom limb pains? The copies of plastic surgery images laid on top the table traversing through the wall between 'after' and 'before', display on both sides images of such castrated phantom limbs. This report of the human body which is a collection of numerous low-resolution images of body transformation on the internet, is in fact our lost part as well as our other half reflected on the mirror proving that we are implementing our own body as a numbered and radiation detected subject or even on the scale of iconology of anthropology or criminology. Between these double-faced images, each face copies its own simulacra and the difference degrades into black and white to eventually suffer from memory loss and schizophrenia. The warning for the reality's 'after' which Young Joo Lee's surrealist 'poor image'<sup>10</sup> shows, does not create another value that is the morale. It only shows the moment of decision that coexists with 'before'. Just like his or her voice emitting a certain satisfaction at the pausing moment when it decides to abandon the procedure after some hesitation.

make it look like the left hand which is the phantom limb and the patient is asked to move both hands. As such, the patient moves her right hand but feels as if she is moving her phantom limb, the left hand, and was able to solve the causes of the paralysis that triggered the pain. Ramachandran, previous book.

8 Among studies on the origin of emotional expression shown in human and animal's facial expressions, the most exemplary case is Darwin's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Darwin states that the main principles of emotional expression appearing in the facial expressions or gestures of men and animals are; 'First, behavior used to resolve any desire or emotions habitually stays after its functional needs are lost; second, the periodically repeated behavior subconsciously shows opposite behavior and third, regardless to such habits and discipline, there is sometimes a physical expression influenced by the energy of the nervous system'. Darwin chose as analysis indexes for emotional expressions, 'fear, terror, hatred, anger, rage, disgust, guilt, self-attention, shame, helplessness, pride, joy, high spirits, devotion, love, positiveness, modesty, shyness' etc. These feelings are discovered at human viewpoints and most include a social value assessment or decision. And to remind ourselves, the subjects to analyze these feelings are images which are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9 This is an actual advertisement phrase for an apartment complex which means an attractive living space with a nice view and interior.

10 Steyerl defends the low-resolution images floating on the internet degraded from continuous (illegal) copies and transmissions as 'poor images'. These poor images 'are floating as a product in capitalism's media production line, but at the same time have the possibility to sustain the alternative audiovisual economics'. Hito Steyerl, 'In Defense of the Poor Image'.

비포 앤 애프터  
이영주

오토세이브: 끝난 것처럼 보일 때  
2015. 6. 4 — 7. 19  
커먼센터

글 이영주  
서문 김진주  
사진 나씽 스튜디오  
디자인 앞으로

BEFORE & AFTER  
Lee Young Joo

AUTOSAVE: When It Looks Like It Is Over  
Jun., 4, 2015 — Jul., 19, 2015  
Common Center

Written by Lee Young Joo  
Reviewed by Kim Jinjoo  
Photography by Nothing Studio  
Designed by Apuro

fer